

“아시아 문화전당 운영 정부가 맡아야”

세정치, 당론 채택... 윤장현 시장 당선자도 “당연”

특별법 市-정부 갈등속 6개월째 낯잠... 조직 구성 못해

2015년 개관을 앞둔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의 운영 주체를 결정할 특별법이 반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문화전당 조직 구성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광주시와 지역 문화계, 박해자 의원(광주 서구 갑) 등은 문화전당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는 애매한 입장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문화전당 운영할 조직 구성에도 차질을 빚는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운영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19일 광주시와 박해자 의원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는 문화부가 지난해 정기국회 때 제출한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과 재정지민추연합 박해자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동 개정안이 동시에 올라와 있으며, 병합심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임시국회 파행 등으로 아직까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6월 임시국회 때도 인사청문회 등의 일정에 밀려 법안소위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9월 정기국회 때나 논의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다행히 이날 재정지민추연합에서 해당 법안을 광주시민의 뜻에 따라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함에 따라 운영 주체 문제 해결

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운영 주체를 둘러싼 정부안과 박해자 의원 안의 핵심은 정부의 재정 지원 구체화 여부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 개정안에 담긴 “문화전당 건물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안’과 재정지민추연합 박해자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동 개정안이 동시에 올라와 있으며, 병합심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임시국회 파행 등으로 아직까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6월 임시국회 때도 인사청문회 등의 일정에 밀려 법안소위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9월 정기국회 때나 논의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또 애초 정부안에 담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전당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시아문화원 또는 관련 전문단체·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위탁의 범위 등을 정하

기 위해서는 문화전당 운영협회를 뒤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엄격한 심사 등을 거쳐 위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박해자 의원의 이 같은 법안은 광주시민의 뜻을 반영한 것으로, 재정지연합의 당론으로 결정된 만큼 해당 법안을 중심으로 약간의 수정을 거쳐 정부안과 맞대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 내에서도 정부 법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광주의 뜻을 거스르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광주시민의 뜻대로 문화전당 운영 문제가 결정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자측은 “광주에 들어서는 문화전당 문제는 광주 시민과 상의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기본”이라면서 “국립 시설인 만큼 운영 재원 등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시진핑 中 국가주석 내달 3~4일 방한”

日 교도통신 보도

북핵 최우선 의제 될 듯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7월 3~4일 한국을 방문,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교도통신이 19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서울발로 보도했다. 시 주석의 방한은 작년 3월 국가주석 취임 후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중국을 방문한 지 딱 1년 만에 이뤄지는 ‘답방’이다.

중국 정부는 시 주석의 방한 일정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방한 시기 등은 확인해 주지 않았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보도를 확인해 달라는 요구에 “양측은 (시 주석) 방문의 구체적인

시기 및 일정·계획에 대해 밀접하게 소통하고 있다”면서 “관련 소식은 조속히 발표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화 대변인은 “한국은 중국의 중요한 이웃국가로,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 발전을 고도로 중시한다”면서 “한중 양국은 밀접한 고위층 교류 왕래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성공적으로 방문했고 시 주석에게 수차례 조속한 방한을 요청했으며 시 주석은 이를 기쁘게 받아들였다”고 부연했다.

시 주석이 첫 방한에서 박 대통령과 무엇을 논의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반도 긴장 상황이 지속하고 있는 만큼 최우선 의제는 북핵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경실련, 광주 U대회 선수촌 특혜 의혹 감사청구

市 “이미 감사받아 문제없어”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광주 U대회 선수촌 건설사업에 특혜가 있었다며 감사원에 조건부 감사 청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경실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미 감사를 받아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19일 성명을 통해 “광주시가 U대회 선수촌 화장지구 재건축사업과 관련 건설사에 미분양물량을 보증채무하는 특혜를 줬고, 광주시가 조합의 채무를 대신 물어줘야 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원에 광주시장과 관련 실무 공무원에 대한 조건부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실제로 광주시가 채무를 대신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민사상 구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광주시가 U대회 선수촌 건설 사업과정에서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에 미분양 보증채무를 대신 부담하는 특혜를 줬다”며 “광주시가 미분양

물량에 대한 보증채무를 조건으로 하는 시공사 선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시공사 선정 이후 이 같은 조건을 제시한 것은 명백한 특혜다”고 주장했다. 또 “재건축 선수촌이 100% 분양되지 않아 조합 청산 시 채무가 발생하면 이 부담은 광주시에 전액 전환된다”며 “준공을 1년여 앞둔 선수촌이 실제 100% 분양되지 않으면 이 같은 우려가 현실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즉각 반박했다. 광주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참여업체가 없어 도급순위 1위인 현대건설을 집중 설득해 시공사로 참여하도록 했다”면서 “시공사 선정 이후 특혜를 줬다는 경실련 주장과 달리 미분양 보증채무는 시공사 선정과정부터 제시된 조건이었다”고 반박했다. 미분양 발생 등을 이유로 광주시가 채무를 떠안게 된다는 문

제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원 감사결과 우발채무 부분에 있어서는 ‘우발채무가 아니다’는 판정을 받았다”면서 “특히 지난해 11월 18일 모든 세대의 분양계약이 완료돼 시의 보증채무 의무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



카자흐스탄서 “건배” 카자흐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현지시간) 아스타나 대통령궁에서 열린 협정서명식을 마친 뒤 카자흐스탄 관계자들과 건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업무 추진비 부당 집행, 무기직 비공개 채용

광주 산하기관 회계·인사 영망... 58건 적발 시정·주의

광주환경공단 등 광주시 산하 기관의 회계와 인사, 안전 관리 등이 영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19일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광주환경공단과 광주관광컨벤션뷰로 등 7개 기관, 대형공사현장 10곳에 대한 종합감사를 해 모두 58건을 적발, 시정 및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기관별로는 광주환경공단 14건, 시립도서관 6건, 보건환경연구원 6건, 대형공사

현장 19건 등이 적발됐다. 광주시는 시정 29건, 주의 22건, 통보 개선 7건 등의 조치를 내렸으며, 징계 3명, 경고 등 20명, 기관 경고 2곳 등의 문책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 환경을 지켜야 할 광주환경공단은 되레 환경 업무를 소홀히 했다가 직원 3명이 징계까지 받았다. 광주환경공단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관리를 영망으로 한 것은 물론 임차보증금 징수 등 행정처분 부적정, 하수처리 원기관리 부

적정, 업무추진비 등 세출예산 부당 집행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환경공단은 특히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집행한 업무추진비 7300여만원 중 2000여만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했으며, 공개채용 시험 과목을 적법한 절차 없이 변경했고 인사위원회를 부실하게 운영하며 공개채용 없이 무기계약직을 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시립도서관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설정업무와 관내여비 지급, 무기계약 근로자 초과근로시간 확인방식, 물품구입

등에 따른 지역개발공제 미매입, 전기공사가 포함된 건축설계용역 계약체결 등이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검사수수료 등의 세입세출외원금 관리와 청소미화 업무 기간제근로자 채용 절차, 폐수오염도 검사 결과 부적합 통보처리 등의 부적정한 행정행위가 감사에서 확인됐다.

10개 대형공사현장에 대한 감사에서는 모두 19건이 적발됐다. 스프링클러 화재감지기 유지관리용 점검구 미설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태양광발전설비 구조계산 설계 미반영 등 주요 공사 현장의 정기 안전 검사와 소량장비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새누리 광주시당위원장

김윤세 당협위원장 추대

새누리당 광주시당 위원장에 김윤세(56) 광주 북구를 당협위원장이 추대될 예정이다.

19일 새누리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광주시당위원장 후보 등록 신청을 마감한 결과, 김윤세 당협위원장이 단독으로 신청해 오는 20일 오전 시당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제9차 운영위원회에서 추대

형식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다.

광주시당의 한 관계자는 “새로 선임된 시당위원장과 함께 책임당원 확보 등 당 조직을 재건하고

당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호남직업전문학교 이사장과 학교법인 광주대학교 법인이사를 맡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롤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점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역사와 전통의 **미화포**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미화방수주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Advanced Partner

SIEMENS

보청기 사업부 인증
프리미엄 전문점

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상무점
OPEN 특가 이벤트!

상담만 받아도 배터리 1팩 제공
 최신 청력평가 장비 도입
 청각학 석사 전문가 무료 상담

SIEMENS

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상무점
 (마래로메디스유) 보청기사업부
 문의전화 062)376-1010

시정

지멘스 상무점
 약림빌딩 501호
 ● 농림(은진지점)
 ● 아비동감자점